

설 연휴 이동길, 혼잡 줄이고 안전은 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.

-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
- 연휴기간 2,780만 명 이동. 4일간(2.15~18)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- 귀성은 2.15(일) 오전, 귀경은 2.17(화) 오후 가장 혼잡 예상

-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2월 13일(금)부터 2월 18일(수)까지 6일간을 “특별교통대책기간”(이하 대책기간)으로 지정하고, 관계기관 합동으로 “설 연휴 특별교통대책”을 시행한다.
 - 이번 대책기간 동안 2,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으로, 일 평균(중복이동 포함) 834만 명 이동하고, 국민의 31.4%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*된다.
- * 한국교통연구원에서 '설 연휴 통행 설문조사(1.6~13, 9,569명)' 및 관계기관 수요예측 자료로 산출
-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총 이동인원은 13.3% 감소하나, 연휴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9.3%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.

< 전년대비 설 대책기간중 이동수요 예측 >

구 분	대책기간	총 이동인원	일 평균 이동	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
'25년	10일	3,207만 명	763만 명	460만 대
'26년	6일	2,780만 명(13.3%↓)	834만 명(9.3%↑)	525만 대(14.1%↑)

□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(86.1%)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,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14.1% 증가한 525만 대로 예상된다.

○ 특히, 설 당일(2.17)은 귀성·귀경객, 성묘객 등이 집중되어 일 통행량이 작년(554만대) 보다 11.0% 증가한 615만 대*로 전망된다.

* 설 최대 교통량: '06년 369만대 → '16년 505만대 → '24년 629만대 → '25년 554만대 → '26년 615만대

○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2.15(일) 오전, 귀경은 2.17(화) 오후가 최대로 나타나며, 이동 시간도 작년보다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[귀성,2.15] 서울 ⇒ 부산('25년 06:45 → '26년 07:00), 서울 ⇒ 목포('25년 05:20 → '26년 05:40)
[귀경,2.17] 부산 ⇒ 서울('25년 09:00 → '26년 10:00), 목포 ⇒ 서울('25년 08:35 → '26년 09:30)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①교통소통 강화, ②이동 편의·서비스 확대, ③교통안전 확보, ④대중교통 증편, ⑤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 5개 과제를 설정하였다. (☞ 세부내용은 참고파일 첨부)

① (교통소통 강화)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·일반국도 242개 구간(1,847km)에 대하여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,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(294km) 운영한다.

○ 추석 명절 이후 고속·일반국도 21개 구간(202km)을 개통하고, 경부선 양재~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(2.14~18, 07:00~21:00→07:00~01:00)하며,

○ 교통소통 상황, 사고발생 등 도로이용 정보*를 모바일 앱·도로전광판·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.

* 도로이용 정보 안내

- (인터넷) 국가교통정보센터(www.its.go.kr), 로드플러스(www.roadplus.co.kr)
- (모바일) 국가교통정보센터,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
- (방 송) 교통예보 방송(TV.라디오 등), Ex-TV 등

② (이동 편의·서비스 확대) 설 전·후 4일간(2.15~18)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,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·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한다.

○ KTX·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요금을 할인*하고,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하였다.

* 역귀성 알뜰상품(30~50% 할인), 인구감소 지역 철도여행상품 이용 시 철도운임 50% 할인쿠폰

○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* 앞당겨 운영하고,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·장애인에게는 주차비를 무료(2.15~18)로 운영한다. 또한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(T1 2번 출국장, T2 1C·2C·2D출국장)을 통해 여권·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.

* 인천공항 T1 4번 출국장(06:30 → 06:00), 인천공항 T2 2번 출국장(05:30 → 05:00), 청주공항 (05:05 → 04:35), 제주공항 (05:50 → 05:45)

※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을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('26.1),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 18개국으로 확대('25.12), 김해공항 제2출국장을 피크시간대(5:40~10:00) 운영('25.12)은 기 시행중

③ (교통안전 확보) 도로·철도·항공·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차량·여객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.

○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구간(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 표출) 관리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검지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,

○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로 분석하여 법규 위반차량(버스·지정차로 위반, 적재불량 등)에 대한 공익신고도 강화할 예정이다.

④ (대중교통 증편)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·철도·항공·여객선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.7%(16,578회), 9.7%(93.7만 석) 늘린다.

⑤ (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) 폭설·결빙에 대비하여 도로 순찰 및 취약 지구에 대한 제설제 예비살포*·재살포**를 강화하고, 결빙 위험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(20~50%)하며, 내비게이션(길 도우미)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도 미리 안내한다.

* 노면온도 2℃, 대기온도 4℃이하 및 강설강우 등 결빙 우려시/ 살포량 14.3→27.2g/m²로 상향

** 강설상황이 아니더라도 제설제 살포 3시간 후 노면 젖음, 기온 4℃ 이하일 경우 재살포

○ 또한, 폭설·한파 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열차 서행, 항로 우회,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비대응 계획도 준비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, 장시간 운전은 줄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실 것”을 당부하며,

○ “기상 및 도로상황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진 (044-201-3786)
담당 정책 <교통안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유진 (044-201-3230)
		담당자	주무관	정선경 (044-201-3864)
<버스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나진항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3824)
<도로>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과 장	허나운 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소라 (044-201-4135)
<철도>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임상준 (044-201-4631)
<항공>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현 (044-201-4184)
공 동 <해운>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심상철 (051-773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주 (051-773-5733)